



2025년 9월 9일

카이로스기도회 기도제목



9월 카이로스 기도회는 북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요엘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모퉁이돌선교회(06336)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2088호

Phone 02)796-8846 | Fax 02)792-7567 | E-mail main@cornerstone.or.kr

1.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북한 청년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의 죄악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북한은 외래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비사회주의 요소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근간을 마련한 데 이어,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여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특히 이색적 옷차림, 한국식 말투 사용을 금지해 위반자는 노동단련형, 노동교화형 등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한국식 말투(괴뢰말)를 뿌리 뽑고 평양문화어를 표준화할 것을 강요하고, 위반 시 생활총화와 호상비판, 법적 처벌과 행정제재, 디지털 검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의 외부 세계, 특별히 남한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증폭되고 영상물, 음악, 말투, 패션 등 따라하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필요를 차단하는 북한 당국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1) 비(非)사회주의 단속으로 북한 청년들의 자유를 빼앗는 죄악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이는 여호와와의 이르심이니 금식하며 울고 통곡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의가 풍성하시며 측은히 여겨 형벌을 내리지 않으심이라(요엘2:12-13)

2) 청년들을 동원해 수령독재 사상을 세뇌하는 악한 죄악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음을 울려 그 땅의 모든 주민으로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그날이 가까움이라(요엘2:1)

3)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북한 청년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죄악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음성을 발하시니 그의 군대가 얼마나 거대한가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구나 여호와의 날은 위대하고도 참으로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딜 수 있으랴(요엘2:11)

2. 통제에도 틈새로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난 6월 말 청진시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 대사를 흉내내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20대 청년 4명이 보위부에 체포되었습니다. 한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북한의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들어서 자연스럽게 한국식 말투를 사용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한국식 말투에 대한 동경심과 호기심을 크게 가지면서 ‘오빠’, ‘대박’ 같은 한국식 호칭이나 감탄사, 문장 종결 어투를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또한 짧은 길이의 원피스, 얇이 깊게 파인 디자인, 민소매 등을 입는 패션이 유행하고, 자연 갈색 톤의 염색 효과가 나는 ‘직발(매직)’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통제에도 이처럼 틈새가 생기는 이유는 정보 유입 경로의 다양화, 청년 세대의 호기심과 자기표현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통해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 북한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콘텐츠가 제작되어 북한에 보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을 성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그 총회를 성별하라 나이든 자들을 소집하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으라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요엘2:15-16)

2)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 대사를 사용하다 체포된 젊은이들이 석방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분개하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요엘2:18)

3) 청년 세대에게 다양한 정보가 유입되어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고 이것이 북한 붕괴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때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니 나의 백성이 결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요엘2:27)

3. 북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아 구원의 복을 누릴지이다!

북한의 형법 제291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북한 전역에서 점을 치는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평양시의 한 30대 점쟁이가 유별나게 잘 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점을 보려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청년층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미신을 믿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을 보는 데 드는 비용도 아끼지 않는 분위기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사주에 재물운이 있는지, 직업이나 결혼상대, 장사 종목 같은 운수를 점치려는 청년들이 특히 많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주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확실성이 큰 북한 사회에서 점이나 미신이 힘든 현실을 견디는 심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신을 의지하고 점을 치는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총만하게 됨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1) 점집이나 미신을 찾는 북한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는 복을 누릴지이다!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한 것같이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도피한 자들이 있을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 중에 여호와가 부르는 자들이 있으리라(요엘2:32)

2) 북한 장마당을 통해 북한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파될지어다!

그후에 내가 나의 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여줄 것이니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이 대언하고 너희 로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리상을 보리라 심지어 그때에는 내가 남녀 노예들에게도 나의 령을 부여주리라(요엘2:28-29)

3) 북한에 성경이 보내져 청년들이 읽고 주께로 돌아오는 수가 증만할 지어다!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여 너희를 기적으로 보살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리라 나의 백성이 결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요엘2:2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퉁이돌선교회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성령과 더불어 사역합니다.



카이로스 기도회
인스타그램
지금 팔로우하기

